

외식물가 들썩...김밥·떡볶기 사먹기도 힘들다

광주소비자물가 1.2% 상승...김밥 5.6%, 빵 6.4% 올라
외식업체 추가 인상 검토...서민 가계 비상

지난해 전체 물가 지표의 안정된 흐름과 달리 외식물가는 크게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과 청년층이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 값이 가파르게 올라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겼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미 음식 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빌미로 외식업체가 추가 가격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2% 상승했다. 전년 상승률 2.1% 비해 0.9%포인트 낮았던 반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았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음식·숙박은 전년 대비 2.8% 올랐다. 오락·문화(0.4%)와 교육(0.8%), 식료품·음료(1.0%), 의류·신발(1.2%)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특히, 전년 총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도 1.6%포인트나 높았다는 점에서 지난해 먹거리 물가가 크게 치솟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식물가 중에서도 갈비탕이 8.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김밥 5.6%, 생선회 5.5%, 소고기 5.0%, 돼지갈비 4.1%, 삼겹살 4.0% 등 순이었다.

이밖에 가공식품 중에서는 대학생 등 청

년층이나 고령층 1인 가구가 끼니를 때울 때 쉽게 찾는 빵(6.4%)과 삼각김밥(4.4%), 즉석식품(4.2%) 등의 상승률도 높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연일 외식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올해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말연시 김밥 등 분식류와 피자과 빵 등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식 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데다, 추후 외식업체가 가격 인상이 더해질 경우 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지난해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 커피, 농심 등 식품·외식업체가 연말 가격 인상을 추진한 상황에서 올해 들어 즉석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떡볶이'는 떡볶이 가격을 성인과 학생 각각 1000원씩 올렸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던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스쿨'도 피자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고, 제과 브랜드 '뚜레쥬르' 역시 빵 등 약 90개 품목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7% 인상했다.

여기에 호남지역에 50개 이상 가맹점을 둔 한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역시 일부 김밥 메뉴에 대한 가격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분간 외식물가 인상 바람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원재료 값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사가 일부 메뉴에 대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가격이 올라 손님 발길이 끊기면 가맹점주들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단순한 가격인상이 아닌 본사 차원의 대책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휘발유값 1354.65원...32개월만에 최저

광주 1200원대 주유소 등장
당분간 하락세 이어질 듯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기름 값이 연초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약 2년 8개월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광주에서는 12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로, 당분간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광주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1주일 전인 지난달 30일(1373.30원)보다 1당 18.65원 내린 1354.65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선 지난해 11월 6일(1653.04원) 이후 최근 9주간 298.39원이나 하락하면서 지난 2016년 5월 7일(1354.58원) 이후 2년 8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자동차용 경유 역시 최근 일주일동안 19.69원 하락한 1255.62원으로, 2017년 9월 14일(1255.47원) 이후가

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연초에도 기름 값 하락세가 이어가면서 광주지역에서는 휘발유 1200원대 주유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구에는 ㈜대원주유소(1273원)를 비롯해 3개 주유소가 있으며, 광산구에는 ㈜평동제일주유소(1279원)을 비롯한 13개 주유소가 휘발유를 1200원대에 판매하는 등 이날 현재 16개 주유소가 포함돼 있다.

한편, 전남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도 지난 5일 기준 지난달 30일(1390.90원)보다 23.25원 내린 1367.65원을 기록, 자동차용 경유는 같은 기간 1289.22원에서 21.76원 내린 1267.46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는 12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감소 및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올랐으나 위험자산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됐다"며 "국내 제품 가격은 기존의 국제유가 하락분 반영과 유류세 인하 효과로 인해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공장 전량 생산
기아차 쏘울 부스터
'사운드 무드 램프' 적용

기아차 광주공장이 전량 생산하는 쏘울 부스터에 음악과 연동한 조명인 '사운드 무드 램프'가 적용된다.

쏘울 부스터의 사운드 무드 램프는 재생 중인 음악의 비트에 따라 자동차 실내에 다양한 조명 효과를 연출한다.

사운드 무드 램프는 6가지 '컬러 테마'와 8가지 '은은한 조명'으로 구성되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음향이 퍼지는 웨이브 패턴을 본떠 디자인됐으며 기하학적 패턴을 표현하기 위해 조명 패널의 도장 표면을 레이저로 가공하는 '레이저 홀 에칭' 기술이 국내 처음으로 적용됐다.

컬러 테마는 ▲파티 타임 ▲헤이! 요! ▲여행 ▲로맨스 ▲미드나잇 시티 ▲카페로 나뉘며 6개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도어 어퍼 가니쉬, 도어 하단부 스피커의 외곽선, 글로브박스 하단 등 세 부분의 조명 색상이 각 테마에 맞춰 다양하게 변한다.

한편, 쏘울 부스터에는 기아차 가운데 처음으로 블루투스 기기 2대를 동시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지난 4일 평동산단을 방문해 조용균 한국상용트럭주 대표(왼쪽)에게 금융애로사항과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송중욱 광주은행장 중기 방문 금융 애로 청취

신년 첫 행보 평동산단 등 찾아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4일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신년 첫 행보로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을 위해 광주 평동산단을 비롯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평동산단에

소재하는 금속구조물제조업체(유)케이테크코리아(대표 이흥주)와 금속제품 도매업체 광암철강(대표 임완택), 특장차 가변축 제조업체 한국상용트럭주(대표 조용균), 문흥동에 소재하는 예식업체(유)까사디루체(대표 박희란)를 잇달아 방문해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어려울 때 우

산을 뺏지 않고, 더욱 보듬어주는 울타리 같은 광주은행이 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중욱 은행장은 새해를 맞아 신년사에서 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및 중서민 전문은행'의 비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

GDP 대비 부채비율 96.0%
상환부담 상승은 1위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빠르고 가계 빚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2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0%였다.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한국은 7위로 상위권이였다. 1위는 스위스(128.8%), 2위는 호주(121.3%), 3위가 덴마크(117.0%) 순이었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는 한국이 최상위권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분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해서 중국(1.0%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오름 폭이 컸다. 1년 전인 2017년 2분기와 비교한 상승 폭은 2.4%포인트로 중국(3.4%포인트), 덴마크(2.9%포인트)에 이어 3위였다.

정부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본격 증가하기 시작한 4년 전과 비교하면 14.0%포인트 상승했다. 중국(15.5%포인트), 노르웨이(14.7%포인트)에 이어

역시 3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쏟아낸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보다 부채가 붙어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값까지 포함해 가계부채 총량을 보여주는 가계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015년 3분기~2017년 2분기까지 두 자릿수에 달했다가 작년 1분기에는 8.0%, 2분기에는 7.5%까지 떨어졌다.

한국의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 2분기 말 12.4%로 역대 최고였다. DSR은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견줘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가계부채의 위험 지표로 해석된다. DSR가 높을수록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의 DSR은 관련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6위였다. 그러나 전 분기 대비 DSR 상승 폭은 0.2%포인트로 1위였다. DSR 추이로 보면 한국은 주요국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 상품상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 상품상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 상품상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